

암시 Allusion

배형경 개인전

일정: 2013.10.18 (금) - 12.6 (금)

장소: 갤러리 시몬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35-9)

문의: T. 549-3031, 720-3031 F. 549-3032

mail@gallerysimon.com www.gallerysimon.com

이미지 및 보도자료: webhard ID: gallerysimon PW: simon
(guest 폴더 내 배형경 개인전 폴더)



갤러리 시몬에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조형적 물음을 지속적으로 성찰해 온 조각가 배형경의 개인전을 10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최한다.

배형경 작가는 서울대학교 조소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아홉 번의 개인전을 비롯 수 많은 기획전에서 꾸준히 작품을 선보여왔다. 2010년 김종영 미술관 '오늘의 작가' 수상작가 이기도 한 배형경 작가는 한국 구상 조각계의 보기 드문 여성작가로서 30여년 동안 한국 조각계의 비주류로 전락한 표현주의 구상조각, 그 중에서도 인체 조각만을 고집해 왔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한 작가는 자코메티와 로댕의 거친 조각 양식을 수용하여 인간 내면의 고뇌와 실존의 물음을 끊임 없이 표현해 내고 있다. 특히 그녀의 작품은 서

gallery **simon**

구 표현주의와 동양 불교 조각의 요소가 결합하여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사유의 영역을 넓혔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브론즈와 스틸로 제작한 배형경 작가의 신작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며, 전시장을 1층 <암시>, 2층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3층 <꿈을 꾸다>라는 소제목으로 구성하여 관객들을 다양한 사색의 시간으로 안내한다.

이번 개인전의 제목이자, 1층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브론즈 군상시리즈 <암시>는 개별적인 인체형상을 부각하기 보다 전시 공간 전체를 하나의 조각으로 생각하는 작업이다. 전시장의 인물들은 대지의 소리를 들으려 엎드리고, 세상을 거꾸로 바라보고, 고개를 들고 저편 너머를 기억한다. 다소 무겁고 우울한 표정의 인물들은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내면 깊은 곳의 감성을 드러내며 관객들에게 인간 본성에 대하여, 존재의 어려움에 대하여 말하며 인간의 원초성에 대한 화두를 던진다.